



겨울에도 성수기에 가까운 잔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세계적 푸른 양잔디 골프장' 함평다이너스티CC. (함평다이너스티CC 제공)

한겨울 푸른잔디... 남도서 라운딩 즐긴다

따뜻한 날씨에 함평다이너스티 등 전남골프장 휴장없이 정상영업
 담양 다이너스티는 클럽하우스 보수공사 1월 6일~20일 휴장 계획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회원사 골프장 대부분이 겨울철 전면 휴장 또는 부분 휴장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 지역 골프장 대부분은 겨울 휴장 없이 영업을 계속할 것으로 조사됐다. 중·북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따뜻하고 눈이 적은 온화한 날씨 덕분이다.

다이너스티CC의 경우 성수기에 가까운 잔디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올 겨울에도 골프 애호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15일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전국 257개 회원사 골프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7개 골프장이 휴장없이 개장하고 53개사가 일정기간 전면 휴장, 27개사가 주중에

휴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남의 경우 세계적 푸른 잔디 함평다이너스티를 비롯해 골드레이크, 광주, 남광주, 레이크 힐스 순천, 무등산, 클럽900 등 7개 골프장이 올 겨울 휴장없이 골프 애호가들을 맞는다.

하지만, 담양다이너스티는 클럽하우스 보수 공사 및 카트로 포장을 위해 내년

1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 동안 휴장을 계획하고 있다.

골프장경영협회는 아직 휴·개장 계획을 세우지 못한 골프장도 있고 기상 여건에 따라 휴·개장 기간이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동 사항은 골프장경영협회 홈페이지(www.kgba.co.kr)에 게시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의 골프장은 온화한 날씨에다 친절할 서비스로 겨울철이면 전국 골프 애호가들이 즐겨 찾는 명품 코스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윤석민 "2012년 해외진출"

내년 시즌 방어율·다승왕 도전... 몸만들기 돌입

"연봉협상 구단방침 따를 것"

"2011년 팀을 대표하는 선수로 제 몫을 다 한 뒤 한국을 대표하는 투수로 해외 무대를 노리겠다."

KIA 타이거즈의 투수 윤석민이 화려한 2011시즌을 그리고 있다.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브로커'로 맹활약한 윤석민은 지난 14일 팀에 합류해 몸 만들기를 시작했다.

힘난했던 한 해였지만 아시안게임 이후로 시즌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심적인 부담도 털었고, 몸 컨디션도 좋다. 그만큼 내년 시즌에 대한 욕심이 난다.

윤석민은 "올해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시안게임을 중요한 전환점이라 생각했다. 예선전에서 엔트리 누락 소동이 있기는 했지만 금메달을 내 손으로 마무리 했기 때문에 괜찮다. 내년 시즌에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아시안게임은 현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됐다.

윤석민은 "2008시즌과 WBC 베네수엘라전은 생애 최고의 시즌과 경기였다. 아시안 게임에서 좋은 피칭을 했다고는 하지만 최상의 공은 아니었다. 대만과의 경기 영상을 보면서 투구폼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았다. 예전의 좋은 기억과 모습을 살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프로데뷔 후 상과는 큰 인연이 없었던 윤석민은 다승·방어율왕은 물론 골든 글러브

를 내년 시즌 목표로 설정했다. 시즌 전 특별한 목표를 내세우지 않았던 윤석민은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자신감 있게 프로 생활을 즐기기로 했다.

희망에 찬 겨울나기를 하고 있지만 윤석민은 연봉 삭감 대상자다. 시즌 중에는 락아웃을 내리쳐 부상을 당하면서 구단에 거액의 벌금을 내기도 했다.

윤석민은 "프로답지 못한 모습으로 실망을 안겨드렸다. 에이스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한 해가 된만큼 연봉도 구단의 방침대로 따를 것이다.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아니다. 금전적으로는 손해를 봤을지 모르지만 올 시즌의 많은 경험이 나를 성장하게 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얘기했다.

2011시즌은 윤석민에게 해외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틀을 짜는 해이기도 하다. 프로에서 6시즌을 보낸 윤석민은 9시즌을 채우는 2013년 FA(자유계약선수) 자격을 얻는다. 이에 앞서 7시즌 이상을 뛰면 해외 진출이 가능하다. 이번이 없는 한 2011시즌 일종의 공개입찰제 도입 '포스팅시스템'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되는 만큼 구단의 동의가 있다면 당장 내년 시즌이 끝나고 해외무대를 두드러볼 수 있다.

윤석민은 "더 큰 무대에서 한국 야구의 실력을 보여주고 싶다. 물론 그에 앞서 에이스라는 호칭에 부끄럽지 않을 활약을 해 KIA의 11번째 우승을 이끌고 싶다. 충실하게 내 역할을 한다면 해외 진출이라는 목표도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조혜정의 GS칼텍스 굿 스타트

女 프로배구 V리그
 흥국생명 3대 1 꺾어

여자 프로배구의 GS칼텍스가 첫 경기에서 '라이벌' 흥국생명을 물리치고 산뜻하게 시즌을 출발했다.

GS칼텍스는 15일 인천 도원체육관에서 벌어진 NH 농협 2010-2011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첫 경기에서 흥국생명을 3-1(15-25 25-12 25-21 27-25)로 물리치고 첫 승리를 거뒀다.

한국 프로스포츠 사상 최초로 여성 사령탑이 된 GS칼텍스 조혜정 감독은 정규리그 첫 경기를 승리로 이끌며 '엄마 리더십'의 상쾌한 출발을 알렸다.

외국인 공격수 제시카(브라질)가 공격성 공률 36.66%로 15득점에 그치며 다소 아쉬

운 모습을 보였지만, 김민지(17득점)와 지정희(10득점), 정대영(12득점) 등이 고루 안정된 활약을 펼쳐 강호다운 면모를 보였다.

반면 국가대표 센터 김사니를 영입하며 올 시즌 명에 회복을 바르던 흥국생명은 개막 후 치른 세 경기를 모두 지며 초반부터 최악의 부진에 빠졌다.

웅병 미야(크로아티아)가 18점을 꽂아 넣는 등 공격력에서는 뒤지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조직력이 안정되지 않아 들쭉날쭉한 경기를 했다.

다른 팀들보다 2주나 늦게 첫 경기를 치른 GS칼텍스는 초반 손발이 맞지 않아 고전했다.

GS칼텍스는 서브 리시브가 번번이 부정확하게 연결되면서 좀처럼 기회를 잡지 못했고, 그 사이 흥국생명은 10점을 폭발한 웅병 미야의 힘을 앞세워 25-15로 간단히 1세트를 따냈다.



15일 오후 인천 도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여자프로배구 흥국생명-GS칼텍스 경기. GS칼텍스 이숙자, 정대영이 흥국생명 주에나의 스파이크를 블로킹하고 있다. /연합뉴스

GS칼텍스는 2세트 들어 정대영과 지정희가 초반부터 흥국생명의 공격을 정확히 가로막으면서 10-4까지 앞서나가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GS칼텍스 선수들은 2세트에만 6개의 블로킹을 잡아내며 흥국생명 공격의 흐름을 완벽하게 끊었다.

기세가 살면서 리시브가 탄탄해지는 등 조직력도 올라왔다. 외국인 선수가 출전할 수 없는 3세트에서 GS칼텍스는 지정희와 김민지, 배유나, 정대영 등 국내 선수들의 고른 활약을 앞세워 흥국생명의 추격을 뿌리치고 승기를 잡았다.

/연합뉴스

'타격기계' 두산 김현수

연봉 2억7000만원 재계약

'타격기계' 김현수(22·두산)가 내년 시즌 2억70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두산은 15일 김현수와 지난 시즌 연봉(2억5200만원)보다 7.1% 오른 2억7000만원에 연봉 재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2009시즌을 마치고 연봉이 100% 오르면

5년차 타자 최고 연봉 기록을 작성한 김현수는 올해는 연봉 상승폭이 추중하면서 기록 경신을 이어가지는 못했다. 6년차 타자 최고 연봉은 이승엽이 삼성 시절인 2000년에 받은 3억원이다.

지난해 타율 0.357을 때리며 23홈런, 104타점에 최다 안타(172개) 타이틀 2연패를 이룬 김현수는 올해는 타율이 0.317로 떨어졌다. 한 시즌 개인 최다인 24개의 홈런을 쳤지만 타점도 89개로 2009년보다 조금 내리었다.

/연합뉴스

♥신축건물에
우아하고 품격있는 객실!
♥각종 이벤트 행사
장소로도 적합!

**1객실 1주차
도심속 정통무인텔!**

무인텔 필

☎ 062) 523-7789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05-1번지
 현대백화점 옆 LG전자 뒷편
 인터넷주소 : www.feelmotel.kr

테마룸 → 썬 뉴베드 두바이 산토리니 씨클 재부라 플라워 피스 원기둥 네이처

NAVER 검색창에 **무인텔 필** 을 쳐보세요!